

## ‘선가귀감’은 한국불교 필독서

지안 스님의 첫 불교교과서 ‘마음속 뿌리찾기’



옛날에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부처님 행위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오로지 경전만을 보배로 여겼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보다 세속의 글을 배우고 전했다.

현대에 들어서는 매일 같이 새로운 수행법들과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명상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이자 조계종 고시위원장이던 지안 스님은 이런 현 세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변화가 시도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변화도 전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뒤에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에서 스님은 최근 <선가귀감>을 새롭게 풀이했다. 스님은 “<선가귀감>은 한국 불교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지만, 불자를 비롯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선가귀감>은 한국불교에 전해져 온 많은 문헌 중 불교경전의 핵심만을 뽑아 엮은 것으로, 불교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책은 서산 대사(西山大師; 1520~1604)가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경론과 조사 어록 등 50여 권의 책을 열람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발췌한 것들이다. 처음에는 원문만 기록해 두었다가 제자들의 청에 의해 알게 쉽게 주해를 붙이고 또 송(頌)과 평석(評釋)이 붙여졌다.

지안 스님은 <선가귀감>을 불교 교과서로 재탄생 시켰다. “요즘 제방 사찰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경전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선가귀감>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서임에도 두루 읽혀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를 통해 불교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교과서적인 책으로 <선가귀감>을 새롭게 풀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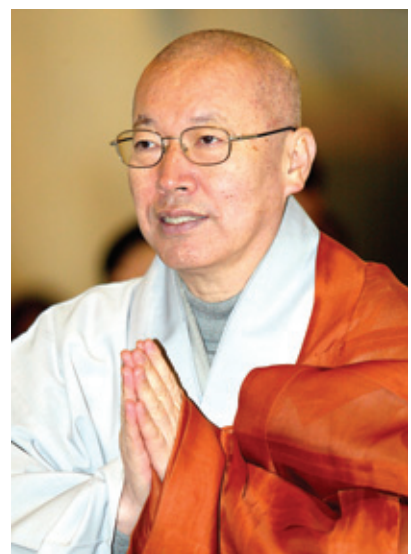
지안 스님은 “<선가귀감>은 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간경, 염불, 주력 등 불교의 수행방법을 종합으로 설하

고 있어, 한마디로 불교수행의 종합개론서”라고 밝혔다.

“서산 대사께서는 <선가귀감>을 통해 불교수행의 전반적 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율종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계율을 엄정하게 지닐 것을 강조했고, 간경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히면서 교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염불과 주력까지 종합적인 수행체계를 밝혀 놓았으며, 심지어 정랑(淨廊)에 들어갔을 때 의 입축주(入廁呪)까지 설하며 수행자의 위의를 갖춰야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가귀감>은 승속을 막론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수행자의 필독서입니다.”

스님은 “물질적 풍요와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수행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이런 때에 <선가귀감>은 개인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가귀감>에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 모두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의 행실을 돌아보며 수행의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선종에 밀려 <선가귀감>이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지만, 책을 번역하면서 <선가귀감>이 한국불교를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책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속 뿌리찾기>를



통해 단 500명, 1000명이라도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지안 스님은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에 무엇보다 시급히 밝혀야 할 것은 불성(佛性)이다. 나를 깨달아 부처의 길에 다다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음속 뿌리 찾기 지안 강설 | 조계종출판사 | 1만8000원 | 이은정 기자

# 30분만 읽으면 감동과 행복이

꿈꾸게 하는 만화가 최영순의 ‘명상만화’



“풍요로운만이 바람직한 삶의 가치인가에 대해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은 스트

레스를 받으며 적게 웃는 삶이 과연 행복일까 하는 회의 말이다. 하기는 그 반대로 산들 어떤가. 적게 일하는 대신 적게 벌고, 적게 먹고, 많이 웃는 그런 삶 말이다.”(본문 47쪽 · 소설가 최성각)

3월 11일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다.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 원전 방사선 누출 사고까지 겹치면서 일본은 최악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재앙보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건 다름 아닌 일본인들의 시민의식이였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재앙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부조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일본인들은 담요가 부족하면 돌로 찢어 나눠 쓰고, 각종 식료품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구입하는 등 침착한 모습으로 재난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모습에 외신들은 일제히 놀라면서 반응을 보이며 호평을 쏟아냈다.

사람들은 과연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또한 나는 배려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길 바란다. 누구나 이런 이기심을 마음에 꼭 쥐고 살아간다.



사실 인생은 조금 천천히, 조금 덜 정확하게, 조금 손해 보며 살아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조금만 마음으로 분주하게 살면 살아가지만, 실은 누구나 삶의 여유를 꿈꾼다. 만화가인 최영순은 이렇게 삶의 여유를 꿈꾸는 이들을 위해 짧은 만화와 글을 통해 세상살이 경험과 지혜를 일깨워 준다.

저자는 <마음 밭에 무얼 심지?> <행복 콘서트> 등 ‘명상만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카툰으로 10만 독자들에게 사랑

받아 왔다. 더 강하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하는 현 시대에 자칫 밋밋하고 평이하게 느껴질 수 짧은 것의 만화들이 오히려 잔잔하고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감동을 선사한다.

86편의 이야기에는 살림을 배워 가는 새댁,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부부,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바쁜 엄마, 실 틈 없이 일하는 가장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등장하며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가치들을 유머러스하게 꺼내 보인다.

저자의 책을 읽는 이들은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면 한 2-3도는 올라갈 것이다” “읽는 내내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느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읽는 건 30분이면 족한 책인데, 마음으로 읽는 건 하루가 걸릴 수도 열흘이 걸릴 수도 있는 책이다” 등으로 평한다.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기적의 호르몬 다이도르핀은 바로 ‘감동’이 있어야 분비 된다. 여는 마음공부 책들이 어렵게 느껴진 이들이라면, 저자의 만화를 통해 힘겨웠던 어깨를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바람을 마주하고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내게 날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성낼 곳에서도 마음 한번 바꾸면 금세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번거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 또한 깨끗해집니다. 그 한 순간의 생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 한번 바꾸면 | 최영순 글 · 그림 | 고즈원 | 1만500원 | 이은정 기자

## 산에서 인생을 배운다

산중암자 25곳 순례기



높고 외진 산상(山上)엔 꽃이 피거나 눈이 내리고, 때론 비구름이 휘감긴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부처라 이런 산사엔 어김없이 암자가 존재한다. 온갖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도시. 이런 도시에 넉넉히 날 때, 저자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중암자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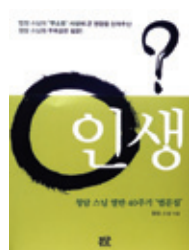
전국 외진 산속에 자리한 25개의 작은 암자들을 찾아다니며, 저자는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는 법을 깨닫는다.

“산에는 인생에 대해 배울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저자는 자연과 암자, 스님들의 흔적 속에서 욕망을 떨치고 사람다운 인생에 충실하게 사는 법을 전한다.

책은 우리가 속세의 먼지에 뒤덮인 몸을 씻고 마음을 닦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생각할 기회를 얻게 한다. 또한 암자마다 가는 길과 주변 정보까지 자세한 설명을 담았으며, 청량한 암자와 산사 사진은 읽는 이의 눈을 맑게 한다. 산중암자에서 듣다 | 박은식 지음 | 북하우스 | 1만5000원 | 이은정 기자

## 도(道)는 참아야 생긴다

청담 스님 열반 40주기 법문



“인류사회가 지금처럼 혼란해지고 전멸의 위기에 놓인 것은 알고 보면 ‘나’ ‘너’ ‘나’ 하는 ‘인아산’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 네가 죽어야 하는 생각 때문이다. 육체만 나이고 다른 것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인아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명(無明)은 더해지고 사회는 점점 혼란해진다.”

도(道)는 마음에 있으며 참으면서 생긴다. 인욕(忍辱)은 6바라밀의 하나로서, 인내를 뜻한다. 청담 스님은 인욕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덕목이라 강조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청담 스님이 열반하신지 올해로 40년이 됐다. 청담 스님은 극락사상과 인욕사상, 호국사상을 강조하며 불교 정화에 앞장서 왔다. 이런 스님을 기리 위해 청담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이 한데 엮여졌다. 평소 참선과 참회의 반복 속에서 마음공부를 한시도 놓지 않았던 스님의 정신을 더듬어 보기 좋은 책이다. 인생 | 청담 저 | 부록 | 1만1000원 |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 9~15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도
2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3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4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5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6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움살
7	생활속의 금강경	우룡	효림
8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심재원	정우서적
9	마음속 부처 찾기	지안	조계종출판사
10	사벽의 대화	지허	도피안사

\*불서출판 윤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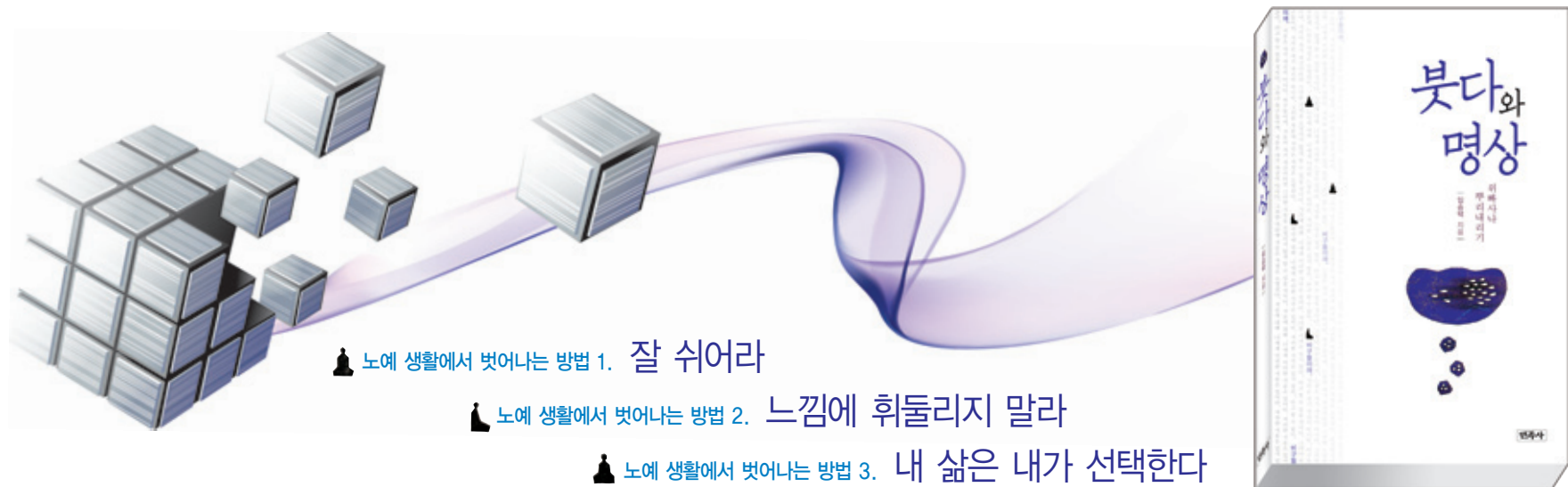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 3672-7181

당신은 삶의 주인입니까?

#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

<붓다와 명상>에서는 위빠사나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더불어 초기불교경전에 나오는 명상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가려 뽑아 명상 초보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명상 초보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들, 명상의 부작용과 사이버 명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 명상 초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 ▶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 1. 잘 쉬어라
- ▶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 2. 느낌에 휘둘리지 말라
- ▶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 3.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 교리·입문 사성제·팔정도

>> 수행·명상 생활명상 위빠사나

>> 신행·문화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사십구재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는 <교리·입문>, <수행·명상>, <신행·문화> 테마별로 계속해서 출간 될 예정입니다.